

# 조계종이 친일파에 의해 만들어졌다?

지암 이종욱을 재조명하다



**조계종의 산파 지암 이종욱**  
박희승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 6000원

“그의 친일행적은 실은 특이한 것이었다. ... (중략) 이종욱의 이러한 적극 친일이 실은 독립운동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이었다고 한다. 해방 후 밝혀진 바인데, 이종욱은 적극 친일을 하는 한편 임정과 계속 연락을 가지면서 군자금을 밀송하곤 했다고 한다.” (본문 219쪽)

친일파 연구로 일생을 바친 시인 임종욱은 저서 <실록 친일파>에서 지암 이종욱 스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암 이종욱 (1884~1969) 스님은 누구인가. 지암 이종욱 스님은 한국불교의 상징인 조계종과 조계사를 재건한 주역이다. 하지만 이보다 ‘불교계의 대표적 친일파’로 사람들에게 더 알려졌었다.

10여 년 동안 지암 이종욱 스님을 연구해온 저자 박희승 조계종 문화부 차장은 최근 <조계종의 산파, 지암 이종욱>을 펴내 스님의 일대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조명했다.

저자는 조계종 불학연구소 연구과장 재직 당시,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으로 국가훈

장을 받은 이종욱 스님이 친일파로 비판 받는 데 이에 대한 중단의 의견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 후로 지암 이종욱 스님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지암 이종욱 스님의 친일파가 전면화 된 것은 임해봉에 의해서다. 1993년 임해봉은 저서 <친일불교론>(민족사)에서 “이종욱의 친일은 조선불교계 친일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친일행적과 조선불교 조계종의 성립, 그리고 종명의 제정과 그 존속 여부 등은 재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은 현 조계종이 일제 당국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저자는 “지암의 일제협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제강점기 전반부에 눈부신 항일운동을 했던 지암이 3년간 감옥살이 후 월경사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 사찰과 교단활동에 뛰어 들었다. 조선불교도의 숙원이었던 총본산 건설을 성사시켜 조선불교조계종을 재건하고 종정 한암 스님의 지시로 종무총장 자리를 맡아 종단을 책임졌다”며 “이 과정에서 지암은 종단의 책임자로 일제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암은 일제강점기 말기 범명 종육 앞에 출생지 ‘광정리’에서 따온 ‘광전(廣田)’을 앞에 붙여 ‘광전종육(廣田鍾岳)’이라고 창씨개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저자는 “지암을 친일파로만 비판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일제강점기의 많



총본산 태고사(現 조계사) 건축공사 장면

은 친일파처럼 지암은 자신의 출세나 부귀영화를 위한 행위는 찾아볼 수가 없다”며 “그는 조선불교도의 오랜 염원인 총본산 건설과 교단 재건을 위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오욕을 감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자는 “조계종 원로 큰스님들이신 석주·고송·관응·범통·천은 스님 등 20여 명을 직접 찾아 당시 증언들을 들어본 결과 한결같이 지암은 친일파가 아니라 일제에 협력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항일운동을 했던 애국자였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지암 이종욱 스님은 파고다공원의 3·1만세운동에 직접 참가했으며, 한성임시정부 수

립에 불교계 대표로 참여한 뒤 중국으로 건너가 상해임시정부 내무부 참사, 국내특파원으로 연통제 국내조직 총책,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 대동단과 김가진 이강공 상해명령사건 주도, 청년외교단 애국부인회 대한적십자사 조직, 대한불교 독립선언서 대한의용군승단 주도, 불교계의 상해임시정부 지원 등 많은 항일운동을 펼쳐왔다.

저자는 “조계사와 조계종의 재건자인 지암을 통해 한국불교 근현대사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길 바란다”며 “앞으로 이런 사실에 대해 공정한 재평가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 “Open the Mind, See the Light”

(마음을 열고, 광명을 보라)

붓다 정통 법맥 선사 중 최초로  
禪의 바른 안목을 서구에 전파

“What was your original face before your parents gave birth to you?”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진제 스님(동화사·해운정사 조실)은 최근 부처님 정통 법맥을 이은 선사 최초로 영문 법어집을 출간했다. <Open the Mind, See the Light>는 올해 9월 15일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열린 ‘세계평화를 위한 간화선 대법회’ 법문과 언론 보도, 국내에서 설립한 각종 법문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영문 법어집은 선(禪)의 바른 안목이 서구사회에 전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진제 스님은 산중스님들의 전유물로 내려오던 간

화선 수행법을 일반인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선의 대중화·생활화에 앞장서 왔다. 이 책은 한국의 간화선 수행법을 지구촌에 전파해 인류 각자의 내적 평화를 통해 세계평화를 실현하려는 진제 스님 원력의 결실이다.

동양정신문화의 정수인 간화선 수행법은 세계 여러 나라 중 한국에서 가장 활발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화 60년 동안 간화선 수행의 전통이 메말라버렸고 일본은 형식적으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간화선 수행의 원형이 살아있는 유일한 나라로 꼽힌다.

<Open the Mind, See the Light>는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 현각 스님이 번역하고 세계적인 불교학자 로버트 버스웰 교수(美 UCLA)가 감수를 맡았다. 눈 밝은 선지식의 가르침에 목말라왔던 외국인 수행자들에게는 단번에 같은 법문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

**Open the Mind, See the Light**  
진제 대선사 지음  
매경출판 펴냄  
2만원

제 대선사는 앞으로도 영문 법어집 2만 권을 인쇄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등 6개국 2000여 주요대학 도서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진제 대선사는 “앞으로 과학에 뒤떨어진 종교는 도태할 것이며, 21세기에는 선(禪)이 세계를 휩쓸 것”이라며 “물질이 풍요로워도 마음의 평화는 따라오지 않는다. 마음의 갈등을 해소하는 길은 오직 참선 뿐이다. 선 수행으로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자연히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3~11/29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도
2	화해	틱낫한	불광출판사
3	엄마수업	법륜	휴
4	망설일 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도법	불광출판사
5	죽어야 나를 보리라	대행	한마음출판사
6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안성두 외	운주사
7	네가 던진 돌은 네가 깨내라	기후	이자리
8	붓다를 죽인 부처	박노자	인물과사상사
9	불명이 감춘 스님의 비밀 레시피	일문	담양북스
10	서른에 법구경을 알았더라면	김윤환	작은씨앗

※불서총집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http://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서평

### 삶은 긍정하는 만큼 행복해진다



**청춘의 위로와 긍정**  
이상복 지음  
책만드는 집  
1만원

아닌듯하다. 날 좀 봐 달라는 하소원은 더욱 아니고, 베스트셀러를 꿈꾸는 상술도 감지되지 않는 그런 책이다. 그저 답답할 뿐인, 느낌을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은 이야기들.

세상을 긍정하기

여러 곳에서 ‘긍정 마인드’를 이야기 한다. 서점가의 ‘출세론’을 다룬 책들이나 잘나가는 강사들의 강연내용, TV 광고에서도 긍정을 이야기한다. 세상을 긍정하는 사람은 인생을 긍정하고, 긍정적인 인생은 행복으로 귀결된다는 것. 누가 모르나? 다 알지만, 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인간 행동의 이중성 아니겠는가?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긍정을 강조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귀속을 각 지게 파고들지 않는다. 무더기 대로 무더기 긍정 마인드를 긍정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는 어느새 긍정을 강조하는 이야기 뒤쪽에 양갈지게 눈 뜨고 도사린 ‘부정’의 얼굴을 봐 버렸는지도 모른다.

저자 이상복 교수는 정서장애 및 행동장애에 관련 연구에 몰두하며 후학을 가르친 ‘선구자’다. 대학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강의하면서 살아 온 날들을 되돌아보니 거기에 ‘긍정 마인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다. 불우한 어린 시절, 매사에 ‘통 크게 사시는’ 큰어머니의 뿌리가 바로 긍정임을 은연중에 배웠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몰두했다. 그랬더니 좋은 사람들이 늘 곁에 있었다. 때맞추어 기회가 주어졌고 당차게 도전해 이루어 냈다. 실패마저 부정하지 않는 자세가 아니었다면 불행의 그물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긍정을 긍정하기

그렇게 긍정으로 임해 온 저자의 업경(業鏡)에 비추니 스님이 등장한다. 운문사 강백 일진 스님이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스님이 암환자인 저자에게 이런저런 충고를 하는 대목에서 스님이 ‘엄마’로 변했다.

우리는 긍정과 부정 사이에, 거짓과 진실 사이에, 지옥과 극락 사이에, 오른쪽과 왼쪽 사이에 살고 있다. 석가모니가 중도를 가르치고, 예수가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치고, 공자가 수신의 도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지만 세상은 미끄럽기만 하다. 그래서 위로받고 싶어 하는 서로의 속내를 아파하면서 도 집짓 외면하기도 한다.

“정말 엄마같이 잔소리가 많으십니까?”

“그럼 엄마 하세요!”

이 대화로부터 저자의 삶은 긍정에서 긍정을 초월하는 ‘대긍정’으로 전환됐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을 이야기 하지만 ‘긍정을 긍정하는 지혜’는 말하지 않는다. 진리를 허공에 띄워놓고 그저 바라만 보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진리는 허상일 뿐이듯, 긍정을 초월하는 긍정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것도 긍정할 줄 모른다. 그래서 타인에게 위로받고 싶어 목이 마를 뿐이다.

부정을 긍정하기

혼신을 바쳐 살아 온 한 생의 초겨울(60대 나이)에 ‘유방암 4기’를 선고 받았다면 분명할 불행이다. 그런데 그 불행을 긍정했다. 찾아온 불행조차 부정하지 않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은 즐거웠다.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내가 긍정하는 그 방향으로!”

이런 외침은 운명의 세포들에게도 메아리쳐 갔을 것이다. 그 밝은 음파에 암세포는 조금씩 물러났다. 타고난 천성으로 부정마저 긍정했고, 그래서 행복한 이야기를 책으로 풀어냈다. 세상을 긍정 바이러스를 퍼뜨리고자 기획된 서술은

진짜 자기  
를 위로할  
사람, 그 역  
시도 자기  
자신임을 공  
정하라!

임연대 · 시인 본지논설위원

## 〈화〉 이후 9년, 틱낫한 마음 치유 이야기의 결정판!

틱낫한 스님의 심리 처방전

# 화해

내 안의 아이 치유하기

‘너무 오랫동안 나를 내버려둔 건 아닐까?’

**내면 아이를 찾아가는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길잡이**  
꼭꼭 숨겨 두었던 마음속 짐을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머물다 쉬어 갈 수 있는 책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인문)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15분 명상

##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

명상!  
하고 싶지만  
왜지 어려운가요?

책 콘필드 지음 | 추신희 옮김  
156면 | 12,000원  
부록 : 명상유도 CD

초보자를 위한 본격 명상 입문서

스티브 잡스의 통찰력과 창의력  
마이클 조던의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기획력과 업무력 향상  
평온한 마음과 면역력 증강  
- 당신도 얻을 수 있다

불광출판사 Tel. (02) 420-3200 Fax. (02) 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 www.facebook.com/bulkwang